

Focus



수입원 : MK엔디프라이즈 (02)715-4585

· 가격 : 530만원 · 구성 : 2웨이 2스피커 · 사용유닛 : 우퍼 10cm, 트위터 2.7cm

· 재생주파수대역 : 60Hz-25kHz(±3dB) · 임피던스 : 8Ω · 출력용량(레벨) : 60dB/W/m · 권장 앰프 출력 : 30-100W · 크기(W×H) : 18×38×29cm · 무게 : 6.8kg

Terra II

불가리아에서 날아온 로맨틱한 매혹의 진실 글 신우진

자 그마한 두 개의 박스가 배달되어 왔다. 이름처럼 박스는 볼륨이 없이 혼한 로고 하나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Everything But The Box'인 것은 물론 아니다.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에브리싱 빗 더 박스는 도브레브(Dobrev) 형제가 2003년 설립했다. 원래 이들은 공산 체제 하에서 수중 음향학을 전공, 음향 기술자로 활동하다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1991년 샤크 아트(Shark Art)를 설립, 주로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배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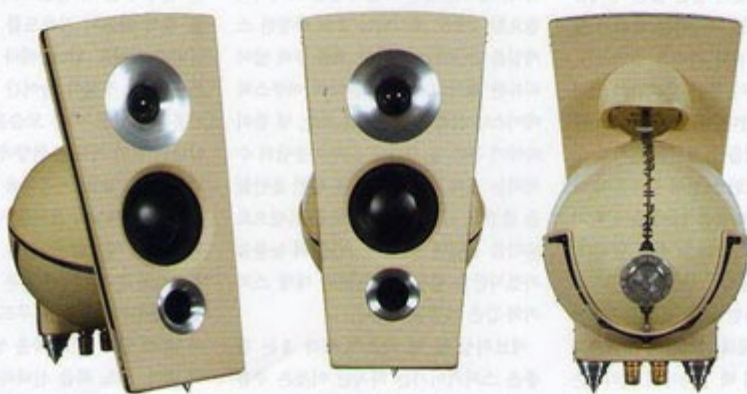
흑해연안의 휴양지인 바르나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가리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수공예에 의한 제작을 하고 있다. 테라 II는 이 같은 수작업에 의한 주조 작업과 마무리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작지만 단단치 않은 정성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숨겨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역의 시어스의 27mm 실크돔이 기계 성형 이후 수공으

로 광택낸 고역 혼을 통해 나온다. 테라 II에 보이는 번쩍이는 모든 것들은 수작업에 의해 광택 작업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된다. 물론 그밖에 많은 부분에서도 수작업이 이루어진다. 전면의 역 사다리꼴의 배플 역시 손이 많이 간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구체(球體)형의 인클로저에는 모델의 중저음 유닛이 탑재되어 있다. 단자는 수프라의 금도금 단자, 콘덴서는 문도르프 등 사용된 부품을 일거하해보니, 크기는 비록 작지만 테라 II의 가격이 싸다고 생각될 정도로 고가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피커에 대해 말하기 전에 스피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오디오에는 몇 가지 필요악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것 중 스피커에서는 네트워크와 인클로저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입력할 때 순도가 높은 음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의 유닛

고급 유닛을 사용한 덕에, 그리고 구체 인클로저에 맞춘 후면 개방 트위터의 기본 좋은 느낌을 주는 실크돔 특유의 고음이 좋은 느낌을 주고, 특히 남성적 목소리나 첼로와 같은 중저역의 느낌은 상당하다. 재미난 것은 드럼과 같은 초저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음도 굉장한 스케일을 만든다는 것이다.

으로 구동되는 플레인지 스피커는 전 음역을 커버하기 힘이 들다. 중역 위주의 빈티지적인 플레인지가 있고, 최근 영역이 확장된 플레인지도 많이 있지만, 하이엔드 기준을 맞추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 방식을 버리기는 했지만 안드라로 대표되는 이글스틴 워스의 스피커들이 중음에 사용되는 모델 유닛을 네트워



크를 거치지 않고 플레인지 형식으로 구동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이 인클로저, 바로 박스이다. 바로 'Everything But The Box'의 그 'Box'. 인클로저에 집어넣음으로 지역의 구동은 쉬워진다. 그리고 저음재생대역도 넓어진다. 전면부로 나오는 것과 역상이 되는 후면부의 음이 상쇄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고 많은 변수가 생긴다. 똑같은 유닛을 사용하는 스피커가 수십배의 차이가 나고 음질이 수백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신소재들이 박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갖가지 방식의 형태가 나온다. 아예 박스 자체에 넣지 않고 전면과 후면을 분리하는 형식을 가진 작은 플레인지 유닛을 커다란 판에 달은 평판형 스피커도 있었다. 형태로서 이 같은 박스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던 것이 공 모양의 인클로저다. 구체는 정제파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인클로저에 가해지는 내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지만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사사키 어쿠스틱에서는 유리로 이를 만들었지만 장식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면이 크다. 최근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카바세(Cabasse) 스피커가 있다. 테라 II는 이 같은 구체형에 트위터를 얹어 놓은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 스피커의 소리는 어떻게? 처음 연결된 음은 많은 신제품 리뷰에서처럼 귀를 자극하는 풀리지 않은 소리가 났고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시어스의 실크들이 돌이 풀리면서 벨런스 잡힌 음이 나왔다. 69Hz라는 그리 만 족스럽지 못한 저음 한계선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느낌의 중저음이 나온다. 모델 유닛의 음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느낌으로 올려준 적은 없었다. 기본 좋게 들어 올리는 붐 터 있는 듯 부유하는 음은 독특한 무대 공간을 만들어 낸다. 스피커 자체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눈을 감으면 그저 벽 전체에서 소리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조금만 더 받쳐 준다



면 정말 초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만들어 낼 것 같다.

고급 유닛을 사용한 덕에, 그리고 구체 인클로저에 맞춘 후면 개방 트위터의 기본 좋은 느낌을 주는 실크돔 특유의 고음이 좋은 느낌을 주고, 특히 남성의 목소리나 첼로와 같은 중저역의 느낌은 상당하다. 재미난 것은 드럼과 같은 초저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음도 굉장한 스케일을 만든다는 것이다. 요즘 부쩍 많이 리부한 랩락의 스탠리 클락의 어쿠스틱 베이스나 샘플러에 수록된 곡들, 몇 종의 타악기 음반 등 크기가 주파수 응답의 수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음반들을 즐겼다. 그리고 평소보다 큰 음량으로 음악을 들었던 것 같다. 86dB의 능률을 가졌지만 느낌은 한 90dB의 대형 스피커와 같은 느낌을 가진다.

에브리싱 벳 더 박스의 테라 II는 참 좋은 스피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류는 아니다. 필자가 이 스피커를 평론하

기가 다른 스피커보다 힘든 것은 생소한 방식 때문이듯, 앞으로 사용하게 될 사용자도 힘들게 적합한 앰프, 적합한 케이블 등 시스템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 좋은 소리를 만드는 스피커를 서브용으로 사용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학구적으로 탐구를 해서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 각오로 덤비지 않아도 된다. 테라 II는 앙증맞은 크기에 정성이 들어간 수공예 금속 가공품을 달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다. 앞면의 천연 가죽은 취향에 맞는 색상을 주문할 수 있고, 자동차용 도료를 이용한 다양한 색상의 레커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으로 매칭할 수 있다.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음역이 넓은 확산으로 산뜻한 분위기를 이른바 무드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A**